



심각해진 미국의 소득 불평등도, 부유층 증세 논란 확대

김세중 선임연구원

■ 프랑스 경제학자인 토머스 피케티와 엠마누엘 사에즈는 미국의 소득 불평등도가 1970년대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, 대공황 이전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함.

- 1913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소득불평등도 추이를 분석한 결과 소득불평등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까지 하락하다가 1970년대 이후 다시 상승하는 U자 형태의 모습을 보임.
- 이들의 연구는 1990년대 경기활황기에는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나 최근 금융위기로 인해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서 주목받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오바마 행정부의 부유층 증세 방안에 토대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됨.
- 연구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07년 사이 하위 90%의 소득은 4% 증가에 그친 반면 상위 0.1%의 소득은 무려 94%나 증가하였으며, 2010년 상위 10%의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소득비중은 50%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남.

■ 피케티와 사에즈는 미국의 소득불평등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45~70%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함.

- 노벨상 수상자인 피터 다이아몬드 교수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유층에 대한 세율 인상(안)이 30% 수준에 불과하지만 레이건 행정부 시절의 50% 수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, 피케티는 30% 세율은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 세율의 1/3에 불과하다고 지적함.
- 부유층에 대한 세율 인상에 반대하는 보수진영은 세율 인상이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케티와 사에즈는 미국보다 세율이 높은 국가들에서 부유층에 대한 높은 세율이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함.
- 한편, 4월 16일 미 상원은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부유층에 대한 세율을 최소 30%로 인상하는 내용의 이른바 버핏세 법안을 부결함.

(New York Times, 4/16)